

아내는 방청소, 남편은 설거지

“함께하는 집안일 즐겁죠”

맞벌이 부부 증가따라 ‘여자일’ 고정관념 깨져

아버지가 가정으로
돌아오고 있다

2

“아빠가 만들어주는 오프라이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회사원 정진호(35·대전시 문화동)씨의 두 딸 은주(7), 은미(5)는 아버지가 음식 만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익숙히 보아왔기 때문이다.

“음식만드는 것이 재미있다”는 정씨는 일요일 요리당번을 자청한 지 오래다. 가장 자신있게 만드는 ‘18번 요리’는 ‘오프라이스’이고, ‘떡볶이’ ‘라면전골’ ‘잡채’는 수준급이라고 자랑한다.

40~50대 주부들이 “다시 결혼하고 싶다”고 농담할 정도로 요즘 정씨처럼 집에서 음식만들기 따위의 집안일을 나눠하는 신세대 남편이 늘어나고 있다. 맞벌이

이 부부가 많아지고, 음식만들기·설거지·방청소 등의 가정일이 아내만의 몫이 아니라는 의식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가정문화 풍속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난해 10월5일 결혼한 맞벌이 남편 진만용(32·풀무원식품 GF경리팀)씨는 퇴근 뒤 집에 오면 김치찌개 등을 직접 만든다. 아내가 저녁식사 준비를 하면 집안 청소를 한다. 둘이서 오붓하게 저녁식사를 마친 뒤에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사람은 반찬을 정리해 냉장고에 집어넣고, 한사람은 설거지를 한다. 먼저 끝낸 사람이 전날 빨래해 널어둔 옷가지를 꺼져 제자리에 집어넣고,

속옷 등을 애벌빨래한 다음 세탁기에 넣어 돌린다.

빨래, 청소, 설거지, 음식만들기 등을 ‘우리 일’로 받아들이는 진씨와 부인 맹윤희(27)씨는 “그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묻는다.

은행원 최정호(33)씨와 출판사에 다니는 윤미숙(30)씨 부부도 집안 일 나눠하기가 잘 되는 경우다.

“저보고 페미니스트라요?”

결혼한 지 4년째인 두 사람은 식사준비와 빨래, 청소 등을 서로 조화롭게 나눠서 한다. 가령 남편이 아침을 준비하면 저녁 당번은 아내가 하는 식이고, 장보기는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번 퇴근길에 만나서 같이 한다. “꼭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아내 혼자서 집안일을 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집안 일=여자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남편들 스스로 깨뜨리지 않는 한 아내들은 가사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할테니까요.”

최씨는 아내와 동등하게 집안일을 나눠하는 자신은 ‘특별한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휴머니스트’일 뿐이라고 말한다.

집안 일 나눠하기에 참여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은 통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월간 <여원>이 최근 20~40대 남성 5백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생활 의식조사는 집안 일 나눠하기에 참여하는 남편이 많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젊은 남편일수록 적극적인여서 20대 62.9%, 30대 43.9%가 빨래하기를 돕는다고 답했다. 가끔 집안청소를 한다는 50.4%, 자주 한다는 17.5%였다.

젊은 세대들의 이런 변화된 모습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광고에서도 잘 나타난다.

30대 남편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출연해 요리솜씨를 뽐내는 <서울방송> 텔레비전의 ‘남편은 요리사’ 프로그램과 텔런트 유인촌씨가 빨래감을 세탁기에 집어넣으며 “아내 사랑, 알고 보면 참

쉬워요”라고 말하는 세탁기 광고는 바로 요즘의 달라진 가정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집안 일과 함께 아이 돌보기에 참여하는 남편도 많다.

유네스코 교육문화부 문화부하권(38) 과장은 일요일 아침 일찍 아내가 교회에 나간 뒤 8살, 5살난 두 아들에게 샌드위치와 계란프라이를 해먹인다. 아침식사를 한 뒤엔 아이들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혀 오전 11시30분이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본다.

가정의 민주화 첫걸음

장보기에 남편이 참여하는 것도 자연스런 가족문화이다.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이면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정장차림으로 장바구니를 든 젊은 부부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들이 퇴근길에 만나 일주일치 생활용품을 한꺼번에 사가는 경우도 많지만,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쇼핑한 물건을 들어주기 위해

산후조리중인 아내를 위해 별미를 만들고 있는 풀무원식품 GF경리팀 진만용씨. 요즘 진씨처럼 부엌을 독차지하는 남편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함께 장보는 것이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선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20, 30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의식조사 결과는 앞으로 더욱 달라질 가정문화를 예고한다.

광고대행사 제일기획 부설 마케팅연구소가 지난 8월 전국 5대 도시에 사는 25~36살의 기혼여성 1백98명, 미혼여성 1백95명을 대상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조사에서 기혼여성 66.5%, 미혼여성 72.8%가 “남자가 장을 보거나 설거지하는 것은 꼴불견이 아니다”라고 답해 흥미롭다.

서울대 가정대 소비자동행학부가 지난 9월 서울대생 2백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체 학생의 74.6%가 ‘자녀양육은 부부공동의 책임’이며, 93.7%가 ‘의사결정은 부부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해 앞으로 가정의 민주화, 평등한 부부관계, 집안 일 나눠하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연숙 기자>